

시인의 마을



농부의 넉넉한 마음이다
바람과 맑은 공기, 햇살 가득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우물가 담장 너머다
평화롭고 따뜻한 숨결에
마당을 지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한 남자처럼, 명에*를 짊어진다
담배 피워 물고
하늘만 바라보던 눈빛마다

세상 풍파와 맞선다
웃소매에 대다
익숙한 듯이, 시름하게 배어 물고

맛깔나고 새초롬하다
뻬꾸기 소리처럼
짧은 미소가, 살구나무 가득

*명에 -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달구지나 쟁기의 체를 잡아매기 위해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등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살구

|| 시시를 담다 ||

바람이 불면, 마당 가득 살구다. 그 많은 살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를 주워 /웃소매에 대다/익숙한 듯이/시름하게 배어/불면/ 행복한 시절
이 있었다. /바람과 맑은 공기/햇살 가득/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농부
의 마을이 /평화롭고 따뜻한 숨결에/마당을 지나/우물가 담장 너머/
한 남자에게 머문다.

바로 아버지다. 세상의 모든 일을 짊어준 아버지의 어깨가 작아 보였
다. 그런 아버지는 /뻬꾸기 소리처럼/맛깔나고 새초롬하/게 먼 길을 떠
나셨다. 어릴 적, 대문에는 살구나무가 한 그루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
었다. 믿음직스러운 녀석은 어김없이 많은 열매로 우리를 흥분시켰다.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새초롬한 맛에 만족스러웠다.

엔진오일을 관리하기 위해 도착한 그곳엔, 녀석들이 반갑게 반겨주었
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아주 우연히 만난 살구 가족, 그들이 있어, 고향
도, 살구나무도, 아버지께 관한 생각도 떠올릴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
지만 행복했다. 한 남자로, 아버지의 외롭고 힘겨운 삶이었다. 그에 비
하면, 아직 젊어질 명에가 많다. 어떤 명에도 좋다. 다 젊어지고 갈 것
이다. 당당하게 말이다. 한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설

결혼 이주여성 검정고시

전북 완주군이 결혼 이주 여성
들을 돕기 위해 펼치고 있는 학
력 취득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지난 4월 9일 실시
된 2022년 1차 검정고시에서 9
명의 이주 여성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과정
2명, 중졸 과정 4명, 고졸 과정
에 3명이 응시했다. 이들은 완
주군의 학력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얻었다.

완주군가족센터에서 초졸 과
정을 이수하고 중 고졸 과정은
전문학원에서 수학했다. 초졸
과정은 지난 2월부터 주2회 4시
간, 중·고졸 과정은 주중 매일
같이 4시간 이상을 학원 수업을
수강했다.

고졸 과정에 합격한 채아름(김
보디아)씨는 "매일같이 만나걸
을 학원에서 보내고 집에서
가족들의 배려 덕분에 공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졸부터 시작했는데 배
우런 배울수록 재밌고 이전 대
학 문을 두드려 볼까한다"고 말
했다.

완주군의 학력 취득 지원 사업
은 2020년도부터 시작했다.

당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박성
일 완주군수와 면담을 통해 검
정고시 지원을 건의하며 사업이
성사됐다.

이후 첫째 9명, 지난해 11명,
올해 9명까지 모두 29명이 검정
고시에 합격했다.

초졸·중졸 과정 합격자들은
다음 과정에도 도전하겠다는 의
지를 보였다.

고졸 과정에 합격한 장경미(중
국)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업
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지장스러운 열마가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요양보호
사를 통해 이전 일하는 열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
다.

한국에서 초졸 과정부터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학력을 취득
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응
원의 박수를 보낸다.

항상 도전하고 성취하며 다양
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
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
기 바란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문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
도 폐지됐다.

이는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
게 되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세 기본세율(6~45%)에다 20%포
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
함하면 세금이 무려 82.5%까지 상
승한다.

이 같은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에
게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다.

주택 매개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
받기도 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2017년 18만8천 건에서 2021년엔
12만7천 건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다주택자 중과 조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 1년간(22.5.10~23.5.9) 한시적
으로 기본 세율과 장부공제를 적
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
지 않는다.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
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에는 장부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
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2주택은 1억3950억원, 3주
택 이상은 1억8925억원을 넘 내
게 된다.

기존 중과 대비 2주택은 3억2550
억원, 3주택 이상은 4억2525만원
감세 효과가 생긴다. 그간 잠겼던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고 거
래량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